

예배순서

*경배와 찬양	임재 / 예수보다 더 큰 사랑 / 나는 주만 높이기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 내게 강 같은 평화 예배하는 이에게 / 예배합니다	다같이
대표기도		안혜성
*성경봉독	온 4:10-11	이령희
말씀	나의 박녕쿨은?	김상범 목사
응답찬양	물 위로 오라	다같이
*봉헌		다같이
*봉헌기도		김상범 목사
광고 및 환영		하지수
*파송찬양	깊어진 삶을 주께	다같이
*축도		김상범 목사

헌금안내

예배중 헌금 순서가 따로 없습니다. 준비하신 헌금은 예배실 입구의 헌금함에 넣어주시거나, venmo(@akpc-offering)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표시에서 일어서 주세요.

응답찬양

물 위로 오라

거친 풍랑을 잠재울
힘이 내게는 없어
뱃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능력을 의지해
맘이 고단해질때
내게 다가오는
그의 음성들리네

오라 오라 물위로 오라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라 오라 물위로 오라
그의 능력으로 이기리
참평안 얻으리

오라 오라 물위로 오라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라 오라 물위로 오라
그의 능력으로 이기리
참평안 얻으리

나의 박녕쿨은? (온 4:10-11)

10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낚다가 하룻밤에 말라 버린 이 박녕쿨을 아껴거든 11 하물며 이 큰 성을 니느웨에는 죄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십이만여 명이었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까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 이야기는 주일학교를 다녔던 사람이라면 모두가 기억할 만한 인상적인 스토리 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 이야기의 핵심은 결코 고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감히 그 이야기는 박녕쿨 이야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요나서가 진짜로 말하려는 부분은 마지막 장인 4장에 가서야 나오입니다. 그 때까지의 스토리를 간략하게 정리해 봅시다. (생략) 이러한 연고로 요나는 화가 잔뜩 났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요나와 같은 상황이 되면 화가 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요나서는 그 분들을 위해 쓰여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도 참 알맞기도 하시지. 왜 하필이면 내 원수를 구원하시는데 나를 사용하신단 말입니까? 한 번 심판하시기로 하셨으면 심판하시어라, 왜 또 마음을 바꾸신단 말입니까?” 이 모든 상황이 요나로 하여금 너무나 화가 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차라리 자기를 죽여 달라고 고백할 정도로 분노하였습니다.

그럼 요나는 도대체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요? 그 비밀이 2절에 담겨 있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 구절은 구약성경 곳곳에서 인용된 유명한 구절입니다. (요엘 2:13, 나훔 1:3, 사편 103:8, 출 32:12-13 등)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들이 죄악 가운데 행하였을지라도,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주께서는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긍휼을 은혜로 여기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 원수에게도 적용된다면 그것은 안된다고 여긴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의 문제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긍휼은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 엘리트 주의, 선민의식, 배타적 구원관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즉, 좋으신 하나님은 나에게만 좋으셔야 하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할만한 역사적 경험과 배타적 축복의 경험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들이 재단하는 실수를 범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제한된 이해가 프레임이 돼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도 요나처럼 화가 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도 때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너무 잘 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 화 내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예는 많습니다. 초대교인들은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며 적잖이 당혹해 하였습니다. 탕자의 형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에게 잔치를 베푸시는 아버지에게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아침 9시부터 하루 종일 일한 품꾼들은 저녁 5시에 와서 아무리만 도운 자들이 자신들과 동일한 품삯을 받았을 때 참을 수 없을 만큼 화가 났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정하신 것도 번복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결정론적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분에게는 모든 것을 결정하실 수도 있고, 변경하실 수도 있는 절대 권위가 있습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어떤 그릇은 귀히 쓰고 어떤 그릇은 버릴 수 있는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리 원칙에 얽매이기 쉽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통 원칙을 세우시고 그 원칙을 지키시지만, 그 원칙에 얽매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원칙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불완전하고 쉽게 변하는 인간이 이런 모습을 갖는다면 그것은 정의롭지 못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완전하시어서 공의의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결정은 항상 정의로우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선악의 기준이 되시며, 사람의 속마음과 의도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공의이십니다. 하나님을 구속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결정한 배대로만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반응에 따라 유기적으로 이끌어가시는 모습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이것을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니느웨는 죄가 만연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계획된 징계를 철회하셨습니다. 요나는 이런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해하려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는 원수가 구원받는 게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 기준, 내 자아를 버려야 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것들을 벗어 버리고, 죽어져야 할 것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 부분을 가르쳐주시기 위해 박녕쿨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뜨거운 사막지대에서 박녕쿨이 만들어 준 그늘을 요나는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벌레가 그것들을 다 갉아 먹어서 태양빛이 그 머리를 비추자 그는 정신이 혼미해져 다시 한 번 차라리 죽여 달라고 말합니다. 이 때, 하나님이 “네가 이 박녕쿨로 내게 성내는 것이 옳으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앞서 니느웨 성을 보고 화내는 요나에게 하신 질문을 똑같이 반복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니느웨와 박녕쿨을 연계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산책

요나가 니느웨의 구원을 보고 화가 났던 것은 ‘선민의식’과 ‘자기 기준’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박녕쿨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박녕쿨이 요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가치는 하룻밤에 말라버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요나가 붙잡고 있던 것들은 하나님께는 박녕쿨 가치밖에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가치는 니느웨 성의 ‘영혼들’이었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박녕쿨을 버려야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박녕쿨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평생 가꿔온 신앙일수도 있고, 주님을 영접했던 기쁨과 감격일 수도 있으며, 성경을 공부하며 익힌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차곡차곡 쌓아 온 가치관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다 소중한 것들이지만, 이것들조차 하나님 자체 앞에서는 그저 박녕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그분 자체가 기준이요 공의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분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면 내 생각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태도가 박녕쿨에 얽매이지 않는 신앙 태도입니다. 박녕쿨을 키우는 것은 복되고 중요하지만, 그 박녕쿨 자체가 하나님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요나에게 가르치시기 원하셨던 핵심 교훈입니다.

나눔을 위한 질문

1. 오늘 말씀에 비취볼 때 내게 있는 박녕쿨은 어떤 것이 있나요?
2. 나는 내 신념과 가치관을 하나님 앞에서 버릴 준비가 되어 있나요? 나는 열린 사고를 갖고 있나요?

성경말씀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교회 웹사이트 댓글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파송찬양

깊어진 삶을 주께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견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AKPC 청년부 예배에 찾아 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

예배시간 : 매 주일 오후 1시
미리 오셔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예배도중에는 이동을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ECO 텍사스 노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기도
기간: 5/28-9/24

팀원 모집

기획팀 - 행사 기획등을 도와주실 분 (문의: 정재인)
라이드팀 - 청년부 예배 전/후 교회 라이드를 도와주실분들 (문의:오은비)
찬양팀 - 남/여 싱어, 건반, 일렉 기타 (문의: 조학영) ----->
예배팀 - 음향/자막 팀원 모집 (문의: 박정호)



헌당팀 신청 QR

새가족 교육 수료

Sam Won, 이수경, 정용찬, 정용민, 최수현

토요한국학교 교사 모집

2023년 가을학기 학생 등록 및 교사진 모집(유급)
문의 및 지원: 김효진 집사(hellozini@gmail.com)

교역자 등정

이강현 목사 휴가(6/6~6/27)
이윤선 목사 휴가(6/20~7/3)

바자회

일시 : 8/12(토) 오전 10시~오후 1시
목적 : Asian Family Support Services of Austin(AFSSA)를 위한
펀드레이징 도네이션 받습니다.
기간: 6/25 - 7/30까지 6주)
장소: 유치부 옆 한국학교 사무실
물품: 성인 및 어린이용 의류, 도서, 장난감, 가방, 신발 등
주최: 에스더 여성교회
문의: 강진실 집사 (jinsilkang09@gmail.com)

생명의 삶 7월호

예배 / 모임

주일청년예배
금요기도모임
청년목장
Good Morning 말씀산책
토요무릎기도회

주일 1pm
금 7pm
주중 또는 예배후
월-금 6:30am
토 6:30am

AKPC
PSALM_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에스겔 37:5

THUS SAITH
THE LORD
JEHOVAH
UNTO THESE
BONES:
BEHOLD,
I WILL CAUSE
BREATH
TO ENTER
INTO YOU,
AND YE
SHALL LIVE.

청년부를 섬기는 분들

신앙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담당목사 김상범 cptksb3@gmail.com
지도장로 김종환 jybella@utexas.edu

청년부에 첫방문이거나 라이드 또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라이드 팀장 오은비 eunbe.or@gmail.com
새가족 팀장 박샤론 Sp9316@gmail.com

양육과정안내

새가족교육

방문자 및 새신자들을 위한 2주간 새신자교육이 있습니다.
더 알아가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일대일 제자양육

교회에 등록하신 모든 분들 대상으로 일대일 제자양육 교육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독교 기본영성과 큐티를 생활화 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어스틴한인장로교회 청년부

12311 NATURES BEND
AUSTIN, TX, 78753
TEL_ 512 454 1727
FAX_ 512 454 6888
PSALM@AKPC.ORG
WWW.AKPC.ORG
FACEBOOK | AKPC 청년부
INSTAGRAM | @AKPC_PSALM

